

도시 공원이용자들의 애견전용공간 계획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연구

A Study on Perception and Needs of Urban Park Users on Off-Leash Recreation Area

이 형 숙*

Lee, Hyung-Sook

Abstract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dogs in high-density urban environments causes conflicts between dog owners and non-dog owners and the access of dogs to urban parks has been controversial among park users. A lack of exercise and socialization, however, can cause canine behavior problems such as aggression and hyperactivity which are potential dangers to people and there has increased demand for a place where people and their dogs can interact and exercise together. In many developed countries, off-leash recreation areas (OLRA) are considered as safe and effective places that dogs can exercise, play, and socialize with other dogs while reducing conflicts between dog owners and other park user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issue of dogs' access to public parks an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park users on OLRA to provide insights and guidelines in establishing OLRA in Korea. The survey respondents, even non-dog owners, perceiv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eparate space for dogs from other park users by providing OLRAs in urban parks and showed the willingness to use. Most of dog owners consider their dogs as companions or family members and feel the lack of places to exercise their dogs. As local government plays a major role in urban animal management which emerge as a social issue at present, more active interventions of municipalities are necessary to support various needs and activities of park users. An experimental OLRAs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s would be a meaningful starting point to effective urban animal management.

키워드 : 애견전용공간, 도시 애완동물관리, 애견운동장, 도그런

Keywords : off-leash recreation areas (OLRA), Urban animal management, Dog park, Dog-ru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06년 12월 국내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의식을 조사한 결과, 동물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83.8%에 이르고, 동물등록제 찬성, 동물보호정책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은 발표하였다. 서울에서 6가구당 1가구 꼴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애견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장묘 등 애견 관련 산업 및 매출액의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해마다 버려지는 개가 평균 10%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의 애견사육 환경은 양극화된 전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04년 4만5천 마리였던 유기견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6만 9천 마리, 2008년 7만 8천 마리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의 애견수의 급증은 애견의 공공장소 출입문제와 관련하여 애견 사육인들의 공원 이용 권리와 이를 반대하는 비사육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며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서울숲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66%의 응답자가 공원의 애견출입을 반대한다는 결과¹⁾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2009년 10월에 개장한 북서울 꿈의 숲 방문객 31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공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 14.5%가 '애완견 출입제한'이라고 응답하여 '운동시설 보완' (22.2%) 다음으로 높은 불만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²⁾. 비단 서울의 대형공원 뿐 아니라 근린공원, 산림공원 등에서도 애견의 공원출입에 관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나 대책 마련은 시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경원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교수, 조경학 박사

(leehs@kyungwon.ac.kr)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No.F00032)이며, 2008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서울숲 애완견 관련 문제 해결 방안,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과, 2005.

2) 전수영, 북서울 꿈의 숲 개장후 방문객 116만 명, 연합뉴스, 2010.03.05.

하루종일 좁은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대도시의 애견들에게 애견산책은 최소한의 운동량을 확보하고 스트레스와 지루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이며, 애견의 운동 부족은 개들의 사회성 결여로 인한 배타성과 공격성의 증가, 이상 행동이나 소음발생으로 주변 이웃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 내의 적절한 공공시설이 부재한 이유로 대부분의 애견인들이 아파트 단지나 인근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애견산책 장소로 이용함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애견사육이 보다 보편화된 외국의 경우 애견 사육자들은 세금을 내는 같은 시민으로서 공원이용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공원내 애견전용공간 (off-leash recreation areas: OLRA)이라는 공원시설의 설치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 도시 애견출입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애견전용공간은, 근본적으로 애견을 위한 공간을 다른 공원시설과 분리함으로써 타 공원 이용자와 애견 사이의 접촉이나 충돌을 줄이면서도 애견인들의 공원 이용권을 보장하며 애견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도록 하는 곳이다. 현재 미국에는 7백여 개, 캐나다에는 5백여 개가 넘는 애견공원이 있으며, 호주, 유럽 등의 대도시 도심공원의 하나의 시설로서 제공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일본이 2002년 도그런 (dog-run)이라는 이름으로 애견전용공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07년 홍콩에도 최초의 애견공원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공원 이용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애견출입 문제를 검토하고 그 해결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애견전용공간 도입에 대한 공원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이후 애견전용공간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애견 사육자를 대상으로 애견 사육현황과 애견산책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비사육자들의 애견 공원출입 및 애견전용공간 설립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애견전용공간 계획을 위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로 삼으며,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애견전용공간의 대상범위는, 도시의 애견관리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애견인과 비애견인과의 갈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공공시설로서 제공하는 하나의 공원시설이며,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영리목적의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훈련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애견전용공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도그런과 같이 기존 공원의 일부 공간을 펜스 등으로 구획을 지어 공원의 다른 시설과 분리시키고, 애견전용공간 내에서 애견들이 목줄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정의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기사 및 문헌의 고찰과 해외사례 검토 및 애견인들의 사육조건 및 애견운동현황과 애견의 공원출입문제와 애견전용공간에 대한 인식과 요

구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10월 일반 공원 이용자 2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고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성남지역의 주요 공원에서 공원 이용자 480명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애견전용공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애견공원의 사례 이미지를 담긴 유인물을 보여주며 조사자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으로 하고 문항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사 요원이 기입하도록 하였다. 총 497부 배포하였고 일관성이 없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응답지 73부를 제외한 42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2.1 애견의 공원 출입과 관련된 법규

국내 애견과 관련된 법규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개의 공원출입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제56조(과태료)’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의 법규가 존재한다. 이 법규는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를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각각 7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시와 카운티 조례도 ‘leash law’ 라고 하여 공원내부에서는 동반하는 애완견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의 과태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텍사스 휴스턴시의 경우 75불 이상 5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애견방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애틀, 볼더(Boulder), 휴스턴을 포함한 여러 대도시들은 애견이 목줄없이 자유로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애견공원 및 애견전용공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애견전용공간에서는 애견들이 목줄없이 자유로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2년부터 도그런 사업이 본격화된 일본 동경도에는 애견공원에 관한 법규화된 조항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도그런을 운영하고 있다.

2.2 애견전용공간에 대한 요구도/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의 경우 애견전용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중 대표적인 것은 서울시가 2005년 시행한 ‘서울숲 애완견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과에서는 서울숲 애견 출입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원 이용자 9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애견의 공원내 애견전용 공간 ‘pet area’를 마련하여 공간적인 분리를 하는데 응답자의 87%가 동의하였으며, “pet area와 no pet area를 이용하여 공원내 특정

공간에 대해 애견의 출입을 허가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절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애견전용공간 의견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소가 2006년 12월 전국 201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조사로서, 반려동물보호와 복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을 파악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항목 중 하나로 공원 내 '반려동물 자유운동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찬반여부를 묻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공원에 울타리 등으로 격리된 공간을 따로 만들어, 개의 목줄을 풀고 운동을 시킬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는" 방안에 대하여, 매우 찬성하는 편이다 (34.7%), 찬성하는 편이다 (53.5%) 등 총 88.2%가 찬성의사를 표현하였다.

표 1. 레크리에이션시설 사용인원 비교 (Batch et al., 2001, p.3)

Recreational Activity	총 면적 (에이커)	이용자수	1 에이커당 이용자수
애견공원	10	35,000	3,500
테니스장	287	80,000	279
소프트볼 연습장	1,050	39,375	40
Golf	1,040	105,000	101

미국의 한 애견단체는 다른 레크리에이션과의 단위면적당 이용자수 비교를 통해 애견전용공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로스앤젤레스의 애견공원 이용자 그룹 'Freeplay'는, 테니스 인구 8 만 명을 위해 LA 시에서 제공한 테니스 코트 시설은 총 287 에이커로 평균 1 에이커 당 279명이며, 소프트볼 장은 1 에이커 당 40명인 반면,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애견공원의 면적을 합하여도 10에이커 정도로 1 에이커당 이용자수는 3,500명이라는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에 등록된 애견 175,000 마리와 잠재적 이용자 35,000명을 고려하였을 때 애견전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애견전용공간 계획과 관련한 연구로서, 호주 개발 자문회사 Harlock Jackson와 퀸즈랜드 대학 동물행동학 및 복지학과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도시의 애완동물 문제와 애견 공원이용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서, 애완동물들이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해야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계획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Winnipeg 시의 애견인을 대상으로 애견공원의 필요성, 만족도, 사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Winnipeg시의 11개 애견공원을 분석한 연구(Alary, 2002)와 미국 애견공원의 이용후평가에 관한 연구(Lee, 2007) 등이 있다.

해외 여러 성공사례에서 입증된 애견전용공간의 장점은 애견을 다른 공원이용자로부터 격리시켜 제한된 공간만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공원이용자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다는데 있다. 또한 애견공원을 통해 운동과 사회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와 관련된 사고나

타 공원 이용자와의 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애견인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이웃 간에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애견산책으로 인한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개선의 효과를 증명할 여러 연구결과와 같이 애견공원은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걷고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 (Kawczynsa, 1999). 애견공원의 장점이 주민들에게 인식됨에 따라 애견공원은 미국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 새 주택단지 개발시 주민 복리시설의 하나로서 사전에 계획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시카고나 휴스턴과 같은 고밀도의 대도시 다운타운의 공원개발에 있어서 애견공간을 하나의 공원시설로 설치하여 도시 젊은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 애견공원은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한 어떤 다른 공원시설보다도 연중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 평가되고 있으며 도시 시민의 여가행태를 수용하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하나로 인식되어 지고있다.



a) 휴스턴 Discovery Green공원 b) 시카고 다운타운The Park at Lakeshore East 도시공원

그림 1. 미국 주요 다운타운 공원 내 애견전용공간

3. 연구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 424명 중 여성이 259명 (61.1%), 남성이 165명 (38.9%)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21명 (28.5%), 30대가 110명 (25.9%)으로 20-30대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외 40대 68명 (16.0%), 10대가 64명 (15.1%), 50대 50명 (11.8%), 60대 이상이 11명 (2.6%) 순이었다. 혼인여부에서는 미혼 60.9%, 기혼이 39.1% 이었으며, 가구당 가족 수는 평균 3.51명, 자녀가 있는 75명의 응답자의 자녀수는 평균 1.59명이었다.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 (48.1%)의 월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었으며, 거주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가 57.8%, 연립주택 27%, 단독주택 거주자는 12.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동주택 거주자였다. 설문조사 당시 애견을 사육하고 있는 애견인은 145명으로 전체 응답자

의 34.2%를 차지하였으며, 개를 사육하지 않은 응답자는 65.8%였다. 설문참여자 중 애견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가 75%를 차지하였고, 30대 이하의 젊은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애견 소유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결혼상태 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애견인 그룹 중 여성 (74.5%), 미혼 (67.6%), 30대 이하 (78%)의 비율이 비애견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월소득, 학력, 거주형태에서는 애견인 그룹과 비애견인 그룹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체 n (%)	비사육자 n (%)	사육자 n (%)	Chi-
성별	남성	165(38.9)	128(45.9)	37(25.5)	16.64 ***
	여성	259(61.1)	151(54.1)	108(74.5)	
연령	10대	64(15.1)	29(10.4)	35(24.1)	19.02 **
	20대	121(28.5)	79(28.3)	42(29.0)	
	30대	110(25.9)	74(26.5)	36(24.8)	
	40대	68(16.0)	54(19.4)	14(9.7)	
	50대	50(11.8)	34(12.2)	16(11.0)	
	60대이상	11(2.6)	9 (3.2)	2(1.4)	
학력	고졸이하	230 (54.5)	143(51.6)	87(60.4)	3.176
	대졸	186 (44.1)	130(46.9)	56(38.9)	
	대학원졸	5(1.4)	4(1.4)	1(0.7)	
결혼 여부	미혼	257 (60.9)	159(57.2)	98 (68.1)	4.70*
	기혼	165 (39.1)	119(42.8)	46 (31.9)	
소득	<200만원	67 (19.9)	44 (20.8)	23 (18.4)	5.87
	200-400만원	162 (48.1)	107(50.5)	55 (44.0)	
	400-600만원	90 (26.7)	51 (24.1)	39 (31.2)	
	600- 800만원	15 (4.5)	7 (3.3)	8 (6.4)	
	>800만원	3 (0.9)	3 (1.4)	0 (0.0)	
주택 형태	아파트	244 (57.8)	162(58.3)	82 (56.9)	3.29
	연립/다세대	114 (27.0)	71 (25.5)	43 (29.9)	
	단독주택	54 (12.8)	36 (12.9)	18 (12.5)	
	기타	10 (2.4)	9 (3.2)	1 (0.7)	

3.2 애견 사육 현황

조사 당시 개를 키운다고 응답한 애견인은 145명 (34.2%)이다. 그 중 애견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75.9% (110명)로 가장 많았고 2마리 16%, 3마리 이상을 키우는 응답자가 7.7%였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여 마당이 없어 실내에서 키운다고 응답한 78.5% (113명), 마당이 있지만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 7.6%를 포함하여 전체 86%가 넘는 애견인이 실내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으며, 실외에서 키우는 사람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애완견과의 관계 및 친밀도 (attachment),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인식되고 있는 이점을 6개의 항목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항목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는 .834 였다. 일반적으로 애완견 사육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얻고 높은 친밀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완견들은 애견인들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 (Mean= 4.08)로, 애견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고 (Mean= 4.12) 우울함이나 외로움을 덜 수 있다 (Mean= 4.01), 애견과 대화를 한다 (Mean= 3.92)는 항목에 비교적 높은 동의를

나타내어 애완견이 반려동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에 있어 여성이 친밀도 (attachment)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집단 비교를 위한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낮은 연령층일수록 애견과 대화를 하거나 애견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와 40대 응답자들은 애견으로 인해 우울함이나 외로움이 덜해진다는 의견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 반면, 30대는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낮았다.

표 3. 애견과의 친밀도 및 애견사육과 관련된 애견인들의 인식

	Me an	SD	성별 (t)	연령 (F)
애견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다.	4.12	.881	2.74**	3.75**
애견은 나에게 가족과 같다.	4.08	.845	4.26***	1.50
애견으로 인해 우울함이나 외로움이 덜해진다.	4.01	.894	3.24**	6.06** *
애견과 대화를 한다.	3.92	.909	2.61**	3.08*
애견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3.55	.998	3.38**	.76
애견으로 인해 안전함을 느낀다.	3.51	1.05	2.74**	1.53
애견산책은 애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4.05	.88	1.48	1.19
애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내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3.82	.91	2.40*	.90
애견과 산책하는 것이 즐겁다.	3.61	1.02	2.36*	2.36*
애견을 정기적으로 산책시켜야 하는 의무감을 느낀다	3.47	1.06	3.38**	.53
애견을 기르면서부터 이전보다 산책/운동을 더 자주 한다.	3.35	1.11	1.87	1.83
가족들은 내가 애견을 규칙적으로 산책시키기를 기대한다	3.28	1.19	3.23**	1.17

* p <.05; ** p <.01; *** p<.001

3.3 애견 운동/ 산책에 관한 인식 및 현황

애견산책에 관한 인식은 애견산책이 애견 및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무감, 운동량의 변화 등에 관한 6개의 항목 (신뢰도 계수= .853)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애견산책은 애견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Mean=4.05, SD=.88) 자신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 (Mean=3.8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견산책을 시켜야한다는 의무감을 갖는다 (Mean=3.47)는 의견과 애견을 통해 산책/운동을 더 자주하게 되었다 (Mean= 3.35)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 남녀 평균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애견을 정기적으로 운동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유의적으로 높게 느끼며, 가족들이 그렇게 기대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령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애견과 산책/운동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응답하였다.

애견산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애견을 산책시키는 빈도는 평균 일주일에 2.35일 (n=127), 평균 35.35분 (n=98)이었으며 애견을 산책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145명 중 19명(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수 응답을 범주화하였을 때, 일주일에 2-3일이 36.8%로 가장 많았으

며, 일주일에 한 번이 26.4%, 매일 산책을 시키는 사람은 4.2% 뿐이었다. 일주일간 총 산책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산책시간 30분 이하가 30.5%, 30분 내지 1시간이 32.6%로 응답한 애견인 중 63.1%의 애견산책 시간이 일주일에 총 1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견을 산책시키는 장소로는 집이나 단지주변이 47.2%로 가장 많았고, 가까운 공원이 32.6%로 대부분 근거리의 장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산책 장소로 양재천, 탄천, 홍제천 등의 하천주변 공원을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한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애견을 운동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복수응답)으로는, '여유시간이 없다'가 30.3%, '산책 시 배변처리가 용이하지 않다' 24.2% (n= 56),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눈치를 받는다' 18.1% (n= 42) 라고 응답하였으며, '애견을 통제하기가 힘들다'와 '가까운 곳에 애견을 운동시킬 녹지가 없다' 는 응답도 있었다.

표 4. 애완견 산책/운동 현황

		n	%
애견산책 빈도	한달에 1-2회 이하	25	17.4
	일주일에 한번	38	26.4
	일주일에 2-3일	53	36.8
	일주일에 4-5일	22	15.3
	매일	6	4.2
	Total	144	100.0
애견산책 지속시간	15분 이하	23	22.5
	15-30분	46	45.1
	30-60분	27	26.5
	60분이상	6	5.9
	Total	102	100.0
일주일간 총 산책 시간	30분이하	29	30.5
	30분-1시간	31	32.6
	1시간-2시간	20	21.1
	2시간-3시간	6	6.3
	3시간 이상	9	9.5
	Total	95	100.0
애견산책 장소	집,단지주변	68	47.2
	공원	47	32.6
	원거리의 공원,공터	4	2.8
	산책시키지 않음	19	13.2
	기타 장소	6	4.2
Total	144	100.0	

3.4 개의 공원 출입에 대한 인식 분석 (전체 응답자 대상)

애견 사육자 뿐만 아니라 비사육자를 대상으로 공원의 이용빈도, 개의 공원 출입으로 인한 불편한 점, 공원 출입에 관한 의견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n= 352)의 공원이용 빈도는 주 1-2회가 71.6%로 가장 많았으며, 3-4일이 18.8%, 주 5일 이상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9.7%였다. 공원 이용 시 개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8% 였으며, 피해원인의 90% 이상이 애견의 배변처리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공원에서 개로부터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비사육자 비율이 사육자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 공원 이용자들은 개의 공원출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개들의 배설물처리 문제 (68.4%)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에게 물릴 위험성 (20.4%), 털이나 병균 등의 위생문제 (9.3%)를 우려하는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공원의 애견출입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7.9%가 개의 공원 출입을 찬성하였으며, 42.1%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비사육자 그룹 (278명) 중에서는 애견의 공원출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41.4%에 비해 반대가 58.6%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표 5. 개의 공원 출입에 대한 인식

		비사육자 명 (%)	사육자 명 (%)	전체 명 (%)	Chi-
이용 빈도 (n=352)	1-2번	157(69.5)	95 (75.4)	252 (71.6)	3.78
	3-4번	49 (21.7)	17 (13.5)	66 (18.8)	
	5-6번	20 (8.8)	14 (11.1)	34 (9.7)	
피해 경험 (n=422)	있다	97 (35.0)	16(11.0)	113(26.8)	27.9***
	없다	180(65.0)	129(89.0)	309 (73.2)	
애견 출입 문제점 (n=421)	배변	184(66.4)	104(72.2)	288 (68.4)	10.97*
	위험	60(21.7)	26 (18.1)	86 (20.4)	
	위생	31(7.4)	8 (5.6)	39 (9.3)	
	기타	2(0.8)	6 (4.2)	8 (1.9)	
애견출입 의견 (n=423)	찬성	115(41.4)	130(89.7)	245 (57.9)	92.2***
	반대	163(58.6)	15 (10.3)	178 (42.1)	

3.5 공원 내 애견 전용공간에 대한 인식

전체 423명 응답자 중 2/3에 가까운 280명 (66.2%)이 공원 내의 애견 전용공간을 지정하는 의견에 찬성하였고 33.8%가 반대하였다. 애견 사육여부에 따른 찬성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비사육자 그룹 중 61.9%가 애견전용공간을 찬성하였으며 애견인 그룹 중에서는 74.5%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어 애견의 사육여부와 상관없이 애견전용공간 지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의 공원 출입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162명 중 59.3% (96명)은 애견전용공간 설치에 찬성하였다.

표 6. 공원내 애견 전용공간 설치에 대한 의견

		비사육자 명(%)	애견사육자 명(%)	전체 명(%)	Chi-
애견 공간 n=423	찬성	172(61.9)	108 (74.5)	280(66.2)	6.77 ***
	반대	106(38.1)	37 (25.5)	143(33.8)	
이용 예정 n=284	이용예정	125(71.8)	104(94.5)	229(80.6)	22.25 ***
	이용안함	49(28.2)	6(5.5)	55(19.4)	
애견 공간 찬성 이유 n=274	즉시이용	2 (1.2)	76(72.4)	78(28.5)	161.59 ***
	미래이용	33(19.5)	5(4.8)	38(13.9)	
	필요하다	79(46.7)	15(14.3)	94(34.3)	
	피해안받기 위해서	523(30.8)	9(8.6)	61(22.3)	
	기타	3 (1.8)	0 (0.0)	3 (1.1)	

애견전용공간이 만들어졌을 경우 이용할 것인가의 이용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애견인 그룹 중 무응답자를 제외한 94.5%가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며, 비사육자 그룹 중에서도 71.8%가 이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사육자들은 미래 개를 사육할 경우에 사용할 의사를 물었다. 비사육자 그룹 중 애견전용 공간 설립에 찬성한 응답자에게 찬성 이유를 물었을 때, 46.7%가 애견전용공간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신들이 피해를 안받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도 30.8%였다. 애견사육자들 중 72.4%가 즉시 이용하기 위해서 찬성한다고 답하여, 애견전용공간 설립 찬성이유가 애견사육 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3.6 공원 내 애견 전용공간 이용료 지불의사

본 연구에서는 애견전용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불가피할 경우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와 이용료 액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애견 전용공간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용료 지불여부를 묻는 결과, 76명(35%)이 애견전용공간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불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41명 (65%)이었다. 이 중 현재 개를 사육하지 않지만 이후 애견사육 시 애견공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6명 (비사육자 그룹 중 29.5%)이며, 사육자 그룹 중 지불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40명 (사육자 그룹 중 42.1%)으로 이었다. 지불의사가 있는 이용금액은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애견공간의 이용료로 1,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불의사액 평균 금액은 1394.37원이었다. 이용료 지불을 반대한 사람 (159명) 중 71.1%는 애견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정부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6%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용료 지불의사에 관한 항목에서 애견 사육여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3.7 애견전용공간 시설물에 대한 선호도

표 7은 애견전용공간 이용의사를 밝힌 응답자에 한하여, 애견 전용공간이 만들어질 경우 내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들을 표시하도록 한 결과를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한 표이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총 233명의 응답자로부터 1,074개의 응답수가 얻어졌다. 70%가 넘는 응답자가 애견 배설물 처리봉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넓은 잔디밭도 과반수의 응답자가 선호하였으며, 나무나 정자 등의 그늘, 화장실, 애견음수대를 선호하는 사람이 40%가 넘었다. 이외에도 소·대형견 분리공간, 조명, 벤치 등이 선호되었다. 한편, 애견장난감이나 물놀이 시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특수한 바닥재료나 시설을 요구하는 테니스장이나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같이 애견전용공간에 요구되는 시설물은 일반적인 공원시설물로서 간단하고 기본적인 시설임을 알 수 있다.

표 7. 애견전용공간 필요시설물 선호도 (다중응답)

	N	백분율(%)	응답자율(%)
배변처리봉투	165	15.4	70.8
넓은 잔디밭	121	11.3	51.9
나무/ 정자 그늘	114	10.6	48.9
화장실	108	10.1	46.4
애견음수대	99	9.2	42.5
소·대형견 분리공간	88	8.2	37.8
조명	79	7.4	33.9
벤치	76	7.1	32.6
애견 씻기는 곳	69	6.4	29.6
애견 훈련시설	57	5.3	24.5
애견 장난감	39	3.6	16.7
피크닉 테이블	33	3.1	14.2
물놀이 시설	24	2.2	10.3
기타	2	0.2	0.9
계	1074	100.0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의 애견관리 문제, 애견인들의 공원출입으로 인한 애견 관련 민원의 증가 및 이에 대한 시민들간의 의견 대립의 심화 등 현재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애견의 공원이용 문제를 재조명하여 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공원 내 애견전용 공간 설립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애견 사육자뿐 아니라 비사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애견사육자들은 애완견을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로 여기고 있으며 우울함이나 외로움의 극복 등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육자들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애견들을 실내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애견들에게 필요한 운동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애견인들의 시간부족도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애견을 데리고 나가 산책시킬 만한 장소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으며, 애견으로 인한 비사육자들의 눈치나 비난 또한 애견산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애견전용공간 마련에 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애견 사육자들은 찬성의견을 표하였으며 비사육자 그룹 중에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찬성하였다. 이는 애견전용공간 마련으로 인해 비사육자들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주요 원인이었다.



그림 2. 애견 배변처리봉투함의 예

한편, 애견산책에 있어 애견 사육자나 비사육자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애견의 배설물 처리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원이나 산책로에 애견 배설물로 인한 피해, 위생문제, 환경문제 등이 사육자와 비사육자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애견인들이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는 의식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며, 정부차원에서 행정처벌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및 공원관리 차원에서 공원 및 산책로 주변에 배변 처리 봉투를 곳곳에 비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공원, 산책로 뿐 아니라 도시 보행가로 및 플라자 등 공공장소에 그림 2와 같은 간단한 배변처리 봉투함(dispenser)을 설치함으로써 애견인들이 자발적으로 애견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도 최근들어 서초구와 속초시 공원에 위생봉투함이 비치되었는데³⁾, 도시공원 및 산책로에 보다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제한된 공원 면적과 부족한 시설들을 다양한 요구를 가진 공원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이용집단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급증하는 도시 애견 및 애견인구를 고려하였을 때 이들 집단의 공원이용 요구와 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 애완동물 관리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 및 선행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견 사육자 뿐 아니라 비사육자 역시 애견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견 공간 설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도시 애견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원계획 및 관리측면에서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2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애견전용공간을 도입하여 8여년의 짧은 시간동안 성공적으로 도그런을 정착, 확산시킨 일본의 선례는 도시 애완동물 관리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이다⁴⁾. 또한 애견공원이 보급된 후 애견 외출시 목줄착용 규정(leash law)을 준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미국의 사례는, 애견인들이 공원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허용된 공간 이외에서의 애견 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애견 사육자의 책무강화⁵⁾와 처벌중심의 관리방안 보다는 애견인들의 공원이용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함으로써 스스로 도덕심과 책임감을 갖고 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문제들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애견전용공간 조성이 애견의 공원출입에 관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범사업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논의를 이끌어내고 애견인들의 책임의식 고취 및 올바른 애견문화 교육의 기회로 이용하게 된다면 정부의 애견문제 해결노력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보고서, 2007.
2. 문지혜, 애완견 기르기 '극과 극' 풍속도, 주간현대, 2010.02.01.
3. 박종일, 서초구 공원의 애완동물 배변봉투함, 아시아경제, 2009.10.14
4.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과, 서울숲 애완견 관련 문제 해결 방안, 2005.
5. 유기영,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6. 이우철, 속초시 배변봉투함 설치, 설악신문. 2010.01.12.
7. 이형숙, 공공시설로서의 공원 내 도그런에 관한 연구-동경 도시공원의 도그런 사례연구, 도시설계, 제10권 제2호, 2009
8. 전수영, 북서울꿈의 숲 개장후 방문객 116만명, 연합뉴스, 2010.03.05
9. 홍콩 최초 애견공원 4월에 오픈, 홍콩소식지 수요저널, 2007.03.07
10. Alary, C., Bark Park: A Social Hub for Dogs and their Owners, Masters's Thesis, University of Queensland, 2002
11. Batch, E. Hale, M. Palevsky, E., The case for space: Expanding recreational opportunities for dog owners and their pets, 2001
12. Harlock Jackson, Public open space and dogs: A design and management guide for open space professionals and local government. A report for Petcare Information & Advisory Service, Australia, 1995
13. Kawczynska, C., Dog Power. <http://www.thebark.com/community/advocacydogparks.html>, 1999
14. Lee, H.S., Evaluation of off-leash recreation parks in Texas and Florida: A study of use patterns, user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2(4), 2009
15. McLaughlin, C. R., They All Bark for Dog Parks. New York Council of Dog Owner Groups, 2005
16. 휴스턴 다운타운 공원 <http://www.houstondowntownpark.org>
17. 시카고 the park at Lakeshore <http://www.archdaily.com/14158/the-park-at-lakeshore-east-ojb>
18. 호주 도시 애완동물 관리협회 Urban Animal Management <http://www.uam.net.au>

투고(접수)일자: 2010년 3월 8일

심사일자: 2010년 3월 10일

게재 확정일자: 2010년 3월 31일

3) 박종일, 서초구 공원 배변봉투함 아시아경제, 2009.10.14
이우철, 속초시 배변봉투함 설치, 설악신문. 2010.01.12.
4) 이형숙, 공공시설로서의 공원 내 도그런에 관한 연구-동경 도시공원의 도그런 사례연구, 도시설계, 10권 2호. 2009.
5) 유기영,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 연구부, 2004.